

“연구성과 확산·신규과제 발굴 성과 거둬”

연구결과 발표대회 2월 24일 연구원에서 개최



지난 2월 24일 연구성과 확산과 발굴을 위한 연구결과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은 2월 24일 대회의실에서 '2005 연구결과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결과 발표대회는 2004년도에 수행한 연구 내용을 관련 분야 종사자들을 초청, 설명회 성과확산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유사 연구에 반영하고 신규과제의 발굴에도 활용할 목적으로 올해 처음 개최해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총 3부로 나눠 정책 프로그램 제시한 연구와 농정 현안 연구 중심으로 10개 과제가 발표되었다. 발표 주제별로 관련전문가인 학계와 정책담당자, 언론인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연구결과에 대해 토론했다.

건강·환경보호, 농업생산 관리 토의

제1부는 동국대 유덕기 교수 사회로 열려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농업 생산과 관리'란 주제로 개최했다. 첫 발표는 최지현 연구위원이 '선진국의 식품 안전 관리체제와 국내도입 방안'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국내 식품안전, 위험

분석체계에 입각한 식품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계임 부연구위원은 '농산물표시제도 개선'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앞으로 농산물 품질표시기준 및 인증제도는 소비자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강창용 연구위원은 '시설 농업용 폐영농자재의 농가처리실태와 효율적 관리제도'란 제목의 발표에서 "시설 폐영농자재는 작목반 중심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개방화 시대 농업과 농정 논의

제2부는 허기행 부원장 사회로 '개방화 시대 농업과 농정'이란 주제로 열려, 권오복 부연구위원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대중국 농산물 수출전망과 확대 전략'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앞으로 우리 농업은 중국 증산증을 겨냥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수출하는 데서 활로를 찾아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병률 연구위원은 '중국 산동성의 주요채소 생산유통 실태와 변화 전망'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산동성의 채소생산 면적이 매년 확산되고 있으며 품질도 좋아지고 있어 수출이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김홍상 연구위원은 '농업부문 사회갈등의 실태와 관리방안: 한칠레 FTA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란 제목의 발표에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갈등관리 기본법' 제정해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으며, 김수석 부연구위원은 '외국농민단체의 농정참여제도 연구'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농촌 삶의 질 향상 위한 패러다임 모색

제3부는 '농촌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의 모색'이란 주제로 한신대 김주숙 교수 사회로 열려 박대식 연구위원이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실태 분석'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현재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미령 부연구위원은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의 평가와 모형정립'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마을개발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하고 마을 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김용택 연구위원은 '농가소득보전 및 안전망체계 확립 방안' 발표를 통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에 대비 농가소득안전망이 시급히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연구원은 이날 연구결과 발표대회를 통해 제시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향후 진행될 연구에 반영해 연구의 질을 높이고 더욱 고객 지향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참고할 방침이다.

“농업·농촌의 성장과 발전기회 제시하는 연구”

2005년 기본연구과제 31개 수행

올해 우리 연구원은 연구사업 목표를 국제화와 지방화 속에서 농업·농촌 부문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시하는 미래 지향적, 정책 선도적 연구 수행으로 세웠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은 올해 연구 사업 방향을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연구 △지역균형 발전과 다원적 기능의 실현을 위한 농업·농촌 발전 전략 연구 △안전 농산물·농식품 공급시스템 연구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가경영의 안정화 연구 △WTO/DDA 농업협상과 FTA 체결에 대비한 협상력 강화 연구 △농업부문의 국제협력과 교류 확대를 위한 연구로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기획과제 6개, 일반과제 25개를 선정해 연구에 착수했다.

올해 우리 연구원이 추진하는 기본과제명은 다음과 같다.

〈기획과제〉

- 농산촌 지역혁신체계(RIS) 기반구축(1차년도)
-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도·농 소득격차 완화 방안(2차년도)
- 쌀 협상 이후의 농지 이용구조 변화전망과 대책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 부문 대응전략
-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상과 농업부문의 과제(3차년도)
- 중국의 농산물 수급 중장기 전망(1차년도)

〈일반과제〉

- 우유의 수급전망과 조절 방안
- 버섯산업의 현황과 과제
- 식품수급표
- 외식소비 관련 통계수요 및 조사 방안
-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구매형태 분석
- 할인점의 농산물구매 행태분석과 성장전망
- 농촌관광 수요확대 방안 연구(1차년도)
- 휴경농지 실태와 정책 방향
-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1차년도)

- 직접지불제가 농업생산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
- 아세안지역의 농업·농촌 실태와 발전 전략: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중심
- 지역분권적 농촌정책의 발전 과정: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 농촌의 경관가치 평가와 관리 방안
-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 방안
- 농산물 수출조직의 진단과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기상요인이 청과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
- KREI-북한농업동향
-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MSO 2005 운영·개발연구
-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MSO 평가 및 효율적 전망체계 개발연구(2차년도)
- 신규취농 및창업농의 실태와 정책과제
- 세계농업 전망모형 Aglink 2005 운영·개발 연구

- 2005 DDA 농업협상 대응전략
- 세계농업정보
- Agriculture in Korea
- 임업부문 직접지불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

농업문제연구 언론인 모임 직불제, 연구사업 의견 교환

우리 연구원이 일간지 논설위원들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농업문제를 연구하는 언론인 모임’을 지난 2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쌀소득 직불제 도입과 공공비축제 도입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또한 올해 우리 연구원의 연구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논설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논설위원들은 농가지원에 대해 긍정하면서도 효율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연구원의 2005년 연구사업에 대해 시의 적절한 연구라고 평가하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연구해 주길 당부했다.

KREI 세미나 네차례 개최 남미농업, EU 농협개혁 등 주제로



주 아르헨티나 최양부대사가 KREI 세미나에서 남미농업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 연구원은 1월 31일 연구원 중회의실에서 미국 데이비스대학 썸너 교수와 이현옥 교수를 초청해 ‘미국 농산물정책의 변화 요인: WTO 면화분쟁, WTO/DDA 협상, 예상 압력’과 ‘무역정책 조정이 세계의 자포니카 쌀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란 제목으로 각각 발표하고 토

론했다.

또한 지난 2월 2일에는 주EU 대표부 김종철 농무관이 ‘EU 농정개혁의 흐름과 2005 농정현안’이란 제목으로 중회의실에서 발표를 하고 토론했다.

지난 2월 15일에는 주 아르헨티나

최양부대사가 우리 연구원을 방문해 대회의실에서 ‘남미농업의 현황과 전망’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2월 18일에는 중회의실에서 한국국제협력단 김상태 인력사업이사를 초청해 ‘한국의 국제협력 추진현황과 전망’이란 제목으로 KREI 세미나를 가졌다.

농진청과 공동연구와 교류 확대할 터

정례간담회 2월 4일 연구원에서 가져



앞으로 농촌진흥청과 공동연구 등 더욱 폭넓은 교류를 갖기로 합의했다

우리 연구원이 농촌진흥청과 2000년 이후 매년 번갈아가면서 개최해온 간담회를 지난 2월 4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시장개방에 대응한 쌀 생산과 유통 전략'이란 주제로 가졌다.

이날 간담회 개최식에서 이정환 위장은 "농업기술을 연구하는 농촌진흥청 전문가들과 농업정책·경제관련 연구를 하는 우리 연구원 전문가들이 매년 후자리에 모여 관심사를 나누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발언을 하며 "앞으로도 양기관이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의견을 나눠 우리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손정수 농촌진흥청장은 답사를 통해 "양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리 농업·농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연구원 허길행 부원장의 사회로 간담회가 열려 농촌진흥청 손종목 작물과학원 품질관리과장이 '국산 쌀 품질 개선 대책'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손과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쌀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품종후입방지대책, 질소비료 시비법 개선, 고품질 생산기반시설의 적극적인 지원을 제안하며 "앞으로 미질검사에 이화학적 검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리 연구원 박동규 연구위원은 '쌀 유통의 변화 전망과 과제'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시판용 수입쌀은 외식용, 단 체급식용 저가미가 주종을 이룰 것으로 보여진다고 발표하며 "앞으로 수입쌀의 국내유통 후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주제 발표 후 허길행 부원장의 사회로 우리 쌀 산업 발전전략에 대해 격의 없는 토론을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손정수 청장을 비롯하여 최희중 기획관리관, 엄기철 연구개발국

장, 정호근 농업경영정보관 등 30여명의 간부들이 우리 연구원을 방문했다.

전망, 동영상 홈페이지 게시 농업전망정보 생생하게 볼 수 있어

우리 연구원은 지난 1월 28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농업전망 2005 발표대회를 촬영·편집하여 홈페이지에 올려 놓아

누구나 컴퓨터를 통해 농업전망 대회 정보를 볼 수 있게 했다.

이번 동영상 게시는 1천3백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룬 가운데 마친 2005 농업 발표 전망대회 정보를 많은 농업인들이 받아보길 희망해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를 통해 게시하게 되었다.

동영상 구성은 개회식부터 종합전망, 1부 도전: 쌀산업의 도전과 과제, 2부 비전: 새로운 활로 모색, 3부 농업·농촌경제, 4부 곡물·임산·축산 동향과 전망, 5부 채소·과일·과채 동향과 전망을 총 20장으로 나눠 올려놓아 필요한 부분만 클릭하면 원하는 발표와 토론내용을 볼 수 있게 했다.

농업전망 동영상을 보길 위하여 연구원 홈페이지로 들어와 첫 화면에 최상자료-관측정보-농업전망 2005를 클릭하면 된다. 또한 농업관측정보센터 홈페이지(http://aglook.krei.re.kr) 첫 화면에서 농업관측정보-농업전망 2005를 클릭하면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 연구원은 이번 전망대회 동영상을 게시를 계기로 더욱 다양한 동영상 정보 제공을 기획하여 농업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농민단체 농정참여, 농업전망 의견 나눠

농업인단체 초청, 조찬세미나 2월 18일 개최



농업인단체를 초청, 조찬세미나를 가져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우리 연구원은 2월 18일 농업인단체를 프레스센터로 초청해 '외국 농민단체의 농정참여제도'와 '농업전망 2005'를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 앞서 이정환 위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현장감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해 현안을 중심으로 농업인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만들어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연구원 김수석 부연구위원이 '외국농민단체의 농정참여제도'란 제목으로, 이어 오세익 선임연구위원이 '농업전망 2005'를 주요 내용으로 각각 발표한 뒤 토론했다.

이날 조찬세미나에 김수석 부연구위원은 독일과 프랑스의 농업인단체가 어떻게 농

정에 참여하고 있느냐에 대해 발표하며 "우리나라 농업인단체는 독일 같은 압력단체보다는 분야별 전문가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농업인단체 관계자들은 앞으로 우리와 상황이 다른 유럽보다 유사한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의 농업인단체를 연구하여 주길 당부하는 등 우리 연구원의 연구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농업관측사업의 의의와 과제

오 세 익 선임연구위원

손자병법에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란 말이 있다. 정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말이다. 적의 전력 과 작전, 강점과 약점을 다 알고 싸우는데 질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은 비단 전쟁뿐 만 아니라 농업경영에도 적용된다. 농민 개개인이 자기가 처해 있는 갖가지 여건, 시장상황, 수요자 동향, 수출입 등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꿰뚫고 있다면 농업경영은 훨씬 수월할 것이다.

손자병법은 농업경영에도 적용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개개 농민은 정보력이 약해 어떤 농산물이 얼마만큼 생산되는지 알 수 없고 따라서 수확기의 가격도 예측할 수가 없다. 게다가 최근에는 외국농산물의 수입도 늘어나고 또 국내 생산도 태풍, 가뭄, 폭설 등 기상요인에 따라 변화가 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이 스스로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농업관측은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다. 즉, 농산물의 생산, 수출입, 수요, 저장, 시장상황 등에 관한 국내외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출하기의 공급량, 가격 등을 예측하고 이를 각종 수요자에게 공급함으로써 농민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업관측은 단·중·장기별로 시행한다. 단기관측은 1~2개월 후, 중기는 분기별, 장기는 1년 내지 10년 앞을 전망하며 그 결과는 각각 월보, 분기보, 전망대회를 통해 발표한다. 2005년에는 1월 28일 코엑스에서 약 1,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망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한국농업의 도전과 비전’을 주제로 하였는데 우선 쌀 협상으로 대표되는 위기상황을 분석하고 주요 채소, 과일, 과채, 축산에 대한 장기전망을 하였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활로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1.2% 감소할 전망이다나 농외소득이 증가하고 쌀농업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수입이 늘어나 농가소득은 작년보다 3.3% 증가한 2,657만 원이 될 전망이다(2000년 실질가격 기준).

쌀 가격은 수입쌀 시판 등으로 전년대비 1.7~2.0% 하락할 것이나, 논농업 직불제 영향으로 벼 재배면적은 1~1.4% 감소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시판되는 쌀 중에서 중국산·호주산 쌀은 국내 저가미와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요식업소 등에서 가격경쟁을 할 것이며, 미국산은 국산 고가미와 품질경쟁이 예상된다. 따라서 수입쌀의 국산둔갑과 국산 쌀과의 혼합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수입쌀의 국산둔갑을 막아야

한육우는 사육두수 및 쇠고기수입 증가로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망되며, 우유는 생산량 증가와 소비 감소로 재고가 증가할 전망이다. 돼지는 모두수 감소로 2005년 사육두수가 감소하여 산지가격이 상승하고 돈육수입이 2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채소류는 고추, 마늘, 당근, 김치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당근은 현재에도 국내 수요의 40%를 수입하고 있고 2014년에는 60%로 수입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김치는 2004년 국내 수요의 5%인 7만 2천톤이 수입되었으나 2014년에는 1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일은 금년 재배면적은 1% 감소하나 성목면적이 늘어나 생산량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과채류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비슷한 5만 7천ha로 전망되나

토마토는 18% 늘어나 과잉생산이 우려된다. 향후 과일 및 과채류 공급은 FTA, DDA 협상의 진척과 중국으로부터 식물검역해제 요청 등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친환경농업은 과잉양분 투입을 절제하고 생태계 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였고, 농촌관광은 안전농산물 생산, 아름답고 깨끗한 경관관리, 관계 마케팅 등 관광상품의 차별화 전략과 이를 주도할 인적자원 육성이 중요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소비 잠재력이 큰 중국, 인도 등 다인구국가, 성장 잠재력이 큰 러시아연방, 개발도상국, 지리적 인접국(일본), 틈새시장이 많은 미국 등을 목표로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타겟 마케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식품안전체계 구축은 소비자를 감동시키고 외국농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평가와 관리기능을 분리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HACCP, GAP, Traceability 등 관리수단의 정착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관측정보의 품질제고가 중요

이와 같은 관측정보가 수요자의 신뢰를 받고 농산물 수급안정화에 기여하려면 정확성, 신속성, 유용성 등 정보의 품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표본농가 및 지역모니터의 확대 개편, 조사방법의 첨단화, 예측모델의 확보와 개선, 해외정보 수집체계의 확대, 정보부산 체계의 개선 등을 포함한 관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다. 항공사진을 이용한 관측기법, GIS를 이용한 입체적 정보제공 기술도 개발해야 한다. 📌

DDA 농업협상 2월 동향

임 소 영 연구원

지난 1월에 있었던 다보스 각료회의에서는 WTO가 세계무역자유화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DD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2월 협상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무역왜곡 보조 감축, 허용보조, 수출경쟁, 저율관세 수입(TRQ)관리 등에 대해 각국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의제별로 협상 그룹간 이합집산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룹간 견제와 공조를 적절히 활용하여 각자 원하는 수준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요 국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협상 그룹간 입장차 여전히 존재

무역왜곡보조에 대해서는 수출국들이 WTO 회원국 중에서 보조 수준이 높은 EC와 미국, 일본을 예로 들면서 이들 국가들에 높은 감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한데 반해 미국과 EC는 원본적인 수준에서 대응하였다. 허용보조와 관련하여 미국과 G10, EC 등은 무역왜곡보조에서 허용보조로 농정을 전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허용보조의 기준 변경은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대폭적인 기준 재검토에 반대하였으나, 수출국들은 허용보조를 통해 품목별 감축보조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보조가 지급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또한 수출국들이 TRQ 물량의 관리방식이 실질적으로 시장접근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자 수입국들은 TRQ는 시장접근에 대한 기회 제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며 TRQ 관리는 각국의 국내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협상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논란이 되었던 쟁점은 비종가세의 증가세

상당치(Ad Valorem Equivalents: AVEs) 전환 자료의 제출시기였다. 지난 8월 1일 합의된 기본골격에 따르면 관세의 크기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높은 관세는 보다 큰 폭으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

AVES산정문제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국가별로 관세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비종가세의 증가세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를 놓고 미국과 케언즈 그룹을 비롯한 수출국들은 투명성 측면에서 증가세로의 전환을 먼저 하여 회원국의 관세구조를 파악한 다음 관세감축공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EC와 G10은 반대로 관세감축공식을 먼저 논의할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비종가세의 증가세 전환이 항구적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증가세 상당치 산정에 관한 논쟁은 관세감축공식과 연계되어 있어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 의제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세감축공식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는 것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될 것이므로, 그래서 의장을 비롯한 각국의 협상 대표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협상 진전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2월의 협상 분위기로 미루어 볼 때 이 문제는 늦어도 오는 3월 초 아프리카 케냐에서 열리는 소규모 각료회의까지는 모종의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룹간 이합집산 가시화

이번 2월 협상에서의 또 다른 특징의 하나는 미국과 EC의 주도적 역할 하에 농산물 수출국 그룹인 케언즈 그룹, 수출개도국 그룹인 G20, 농산물 순수입국 그룹인 G10 등 각 협상그룹의 쟁점별 이합집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던 미

국은 허용보조의 요건 강화를 반대하는 G10 및 EC의 의견에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관세감축이나 민감품목에 대해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EC와 G10과의 공조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또한 수출국으로서 케언즈 그룹의 일원인 캐나다는 민감품목에 관심을 갖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G10과 공조해 나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외에도 각 협상 그룹들은 공통의 관심사항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비공식 협상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모델리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국의 관심사항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의제별로 공통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조관계를 탈피하여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고자 함은 시도가 관측되고 있으며,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얻기 위해 이해관계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도 눈에 띄고 있다.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 필요

이러한 상황에서 7월 중에 제시될 것으로 보이는 모델리터 초안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생산자 보호수준(PSE)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는 국내보조보다는 시장접근분야에 두어야 하며 특히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신축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의제에 따라 기존의 공조관계를 떠나 공통의 관심사항을 가지고 있는 협상 그룹들과는 전략적 협조도 모색해야 한다. 이번 2월 협상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움직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

중국 농업생산성 향상을 2005년도 국정과제로 채택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지난 1월말 농업의 종합생산성 향상을 골자로 하는 '중양1호문건'을 전국에 시달하였다. 중국 정부는 매년 최중요 과제를 1호문건으로 선정한다. 금년도는 '농업의 종합생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정책적 의견'이 1호문건으로 채택되었다.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농업문제가 국정과제로 채택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2년 연속 농업문제가 국정과제

지난해 1호문건은 농민 소득을 증가하기 위한 몇가지 정책에 관한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의견이라는 타이틀로 1985년 이후 20년만에 농업문제가 국정과제로 다시 등장하였다. 핵심은 소득문제이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 농촌, 농민문제라는 '3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위 중국판 '농발대책'이다. 농업세 감면 등 농가부담 경감과 직접지불 등 농가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하여, 식량생산 증가와 농민소득 향상을 도모하면서, 농산물가공·유통구조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개입하였다.

그 성과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기초적인 식량수급 불안정, 농민과 도시주민의 소득격차 확대, 그리고 임해지역과 중서부 내륙지역간의 격차 확대 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와 같이 문제가 확산되는 것은 1978년 개혁개방이후 시장경제가 워리가 도입되면서 생산성 확대와 고성장이 이루어진 반면에 농업과 비농업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하여, 1984년 이후 농업성장이 상대적으로 정체하였다. 여기에는 2001년말 WTO에 가입에 의한 값싸고 질 좋은 수입 농산물의 영향 등이 누적된 결과이다.

중국 정부는 2004년도 농업정책을 추진한 결과 비교적 양호한 발전을 달성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식량생산은 반전하였고, 농민소득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농촌개혁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발전은 국민경제 성장과 사회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WTO 가입이후 문제누적

농민 1인당 현금수입도 300위안 이상 증가하였고, 31개 성중에서 이미 25개성이 농업세 폐지를 결정하였다. 이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한 후 금년은 효율과 경쟁력 제고에 과제를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2004년도 식량생산이 증가하여 5년 연속 감소추세에서 반전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연간 4,900만톤의 공급부족이 계속되고 있다. 또, 도시주민과 농민간의 소득격차는 2000년

2.8배에서 2003년 3.2배로 확대되고 있다. 즉, 농민 3.2인의 소득이 도시주민 1인 소득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로 인한 농민들의 집단시위 등이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의 효율과 경쟁력 제고가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재정투입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700억 위안을 농업부문에 투입, 교통과 통신 등 농촌인프라를 비롯하여 농민훈련과 지방자치 강화, 농민의 경제적 이익보장 등 농촌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①농가 지원정책의 강화에 의한 농민의 적극성 유도, ②농지보전제도 강화와 농지의 질적 수준 제고, ③농업수리 및 생태환경 개선과 농업재해 방어능력 향상, ④농업기술개발 가속화, ⑤농촌 인프라 확충과 환경 개선, ⑥농업·농촌구조 조정의 지속적 추진에 의한 경쟁력 제고, ⑦농촌투융자제도 개혁, ⑧농촌노동자 직업훈련 강화 등 광범위하게 걸쳐있다.

부담 경감에서 경쟁력 향상으로

2004년도 1호문건이 농민의 부담경감과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금년도 1호문건은 농업의 종합생산능력 제고를 통한 농업의 효율과 경쟁력 향상에 정책을 집중한다는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직불제 등을 통한 생산유인과 농지전용 규제 강화 등 유인과 규제가 동시에 농정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농업문제가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배경에는 농업문제의 해결 없이는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중국 정부의 인식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 13억 인구의 70%가 농촌에 거주하고, 50% 이상인 7억인이 농업에 취업하면서 농업생산액이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취약한 점이다.

특히, WTO 가입의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2004년도 농산물 무역적자가 55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또한 수입 농산물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곡물과 같은 기초 식량 생산이 정체, 수입이 증가하는 등 식량안보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1호문건 발표이후 국무원 공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천시원(陳錫文) 중국경제발전연구회 부회장은 "7억 농민의 소득문제를 단기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중국 농업은 시장가격과 기후조건에 지배받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중국의 농업문제가 인접한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또 농업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의 주목을 끄는 점이다. <김태곤 연구위원>

농정개혁법안 국회처리 추진, 농촌인구 노령화 심화

양곡관리법 등 임시국회 처리 추진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과 쌀소득보전기금법, 도시민의 농지 소유 허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 등 농업관련 법안에 대해 정부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농민단체와 경실련 등이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부는 농정개편을 위한 관련법안들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밥쌀용 수입쌀의 시판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고 쌀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쌀소득보전대책도 시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민주노동당과 농민단체, 경실련 등은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식량주권과 국내 쌀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2월 1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정개편을 위한 주요 법안을 상정하였고, 법안들은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농촌인구 감소세 지속...고령화 심각

통계청이 200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농가 6만5200가구 및 어가 6400가구를 표본으로 우리나라의 농어가수 및 인구, 농어업 경영구조를 파악해 2월 18일 발표한 '2004년 농업 및 어업 기본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4년 전국의 농가수는 124만가구, 농가인구는 34만5,000명으로 각각 전년대비 1.9%,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인구는 고령화에 따른 탈농 및 전출 등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총 가구대비 농가는 8.0%, 총인구대비 농가인구는 7.1%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경영주의 연령층은 60대 이상이 59.2%로 나타났으며,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령화지수도 급격히 높아져 지난 1994년 98.6에서 2000년 190.9, 2001년 215.7, 2002년 244.8, 2003년 260.3, 2004년 284.2를 기록하였다.

KREI, '식품 수급표' 발표...곡물 소비 감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2월 20일 발표한 '2003년 식품수급표'에 따르면 곡물류는 쌀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1987년 507.8g에 달하던 1인당 하루 공급량이 2003년에는 429.4g으로 15.4% 줄어드는 등 경제발전과 대외개방 등으로 우리나라

식탁의 서구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물류의 소비가 감소한 대신 서구인들이 즐겨 먹는 육류와 채소류, 어패류 소비는 크게 늘어났고, 육류는 1987년 1인당 하루 공급량이 53.4g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는 배 수준인 106.7g으로 증가해 식단의 서구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DDA 농업협상 올 7월까지 세부원칙 마련키로

농림부 유장배 농업통상정책관은 2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월7일~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 세부 원칙을 7월까지 마련키로 했다"며 "농업협상은 여타 DDA 협상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고 밝혔다.

윤 정책관은 "농업분야를 비롯해 비농산물 시장 개방과 서비스 등 7개 협상분야의 세부원칙이 올 12월로 예정된 홍콩 각료 회의에서 한꺼번에 타결되면 회원국 간 검증 절차를 거쳐 확정되고 이후 국가별 비준 등의 절차를 통해 이르면 2007년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경지면적 매년 여의도 면적 66배 사라져

농림부가 1월 31일 밝힌 바에 따르면,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66배에 달하는 논과 밭이 사라져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총 경지면적(논과 밭)은 183만5,000ha로, 1994년 203만3,000ha에 비해 19만8,000ha, 9.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의 66배에 달하는 면적인 1만9,800ha의 논과 밭이 해마다 줄어들어 그만큼 농업생산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해마다 경지면적이 크게 감소하면서 식량자급에 대한 우려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쌀과 보리, 밀, 옥수수, 콩 등의 식량자급률(사료용 포함)은 1970년만 해도 80.5%에 달했으나 2003년에는 26.9%로 크게 감소하였다.

농어촌 학생 대입 특별전형 2006년부터 정원의 4%로 늘려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2월 1일 농림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15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2006학년부터 농촌과 산촌, 어촌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입학 특별전형의 정원을 전체 정원의 4%로 늘리는 내용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을 잠정 결정하였다.

〈김동원 전문연구원〉

가치 공유, 배우는 일과 연구 성과 확산에 총력 부서, 업무 보고 통해 의욕적인 사업추진 계획 밝혀



기획조정실은 올해 업무지원시스템의 효율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연구원은 올해 핵심가치를 전직원이 공유하고, 직원들의 역량을 배가시키는 동시에 연구성과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부서별 업무 보고를 2월 21일 시작해 25일 모두 마쳤다.

농림기술관리센터는 21일 업무보고에서 각종 의욕적인 사업 계획을 밝혔고, 2월 22일 업무보고를 한 벡터농기업보육센터는 기여금제도 정착, 원격 보육업체 제도도입 등의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홍보문화담당은 연구원 이미지 통합 관리 강화·정착, 홍보 및 워내외 커뮤니케이션 역할 강화, 문회의 생활화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감사담당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연구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2월 23일 업무보고를 가진 기획조정실은 Marketing KREI, Learning KREI 구현, 업무지원 시스템의 효율화, 안정적 재정운영 및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이뤄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행정실은 적극적인 인재모집, 관리업무의 효율화, 복리후생의 효율적 운영 등을 주요 사업 목표로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자료정보지원실은 안정적인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AGRI 시스템의 고도화, 연구지원정보서비스 강화, 체계적인 자료수집 및 배포 등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월 25일은 연구부서인 농산업경제연구센터, 농촌발전연구센터, 농업관측정보

센터, 농정연구센터, 산림정책연구실 등이 각각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연구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더욱 내실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다양한 업무추진 계획을 발

표한 뒤 의견을 나눴다.

원장, 남미 농업 조사차 출국

이정화 원장은 남미 농산물 유통시스템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 2월 27일 칠레로

출국, 아르헨티나를 거쳐 3월 8일 귀국한다. 그리고 2월 23일에는 농어민신문사가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2005 농산업 포럼에서 '시장 개방에 따른 한국 농업의 전망과 과제'란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연구진 동정

△한국식품유통학회장이인 허갑행 부원장은 2월 18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04년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농업정책학회장이인 정명채 선임연구위원은 2월 22일 농협 하나로유통센터 강당에서 'WTO 시대의 농정개혁 과제와 방향'이란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조명기 연구위원은 2월 18일 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식품유통학회 학술대회에서 '농산물공영도매시장, 쇠퇴할 것인가?'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송주호 연구위원은 2월 21일 연구원에서 열린 축산경영학회 학술대회에서 '가축사육두수 총량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PDA를 활용해 관측 산지정보 수집체계 개선”

농업관측정보센터, PDA 58대 보급



농업정보화팀은 PDA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농업관측정보센터는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PDA)를 활용한 산지정보 수집체계 개선사업이 2004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PDA 보급 및 교육을 올 1월과 2월에 실시했다. 농업정보화팀은 지난해 PDA 보급대상 지역모니터들을 선정하기 위해 PDA수요조사, PDA사용동의서 작성, 전화 및 서면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 자문위원의 과거 응답 성실도와 조사품목을 고려해 58명의 PDA보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PDA 보급 및 교육은 전국을 도단위로 묶어 8차례에 걸쳐 농업정보화팀에서 진행했다.

교육은 실제로 PDA를 사용하여 여러 조사문항을 응답해 보고 그 응답 결과를 연구원 농업관측정보 지원시스템(<http://outlook.krei.re.kr>)을 통해 실시간 확인한 뒤,

연구원에서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지역 자문위원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연구원은 적극적으로 지역자문위원의 견을 수렴해 산지정보 수집 시스템을 보다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2005년에는 PDA 100대 추가로 도입하여 전체 지역자문위원의 약 20%에게 공급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산지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